



좋은 친구

FRIENDS

2020. 7
Vol.009

사단법인 프렌즈는 2006년 오륜교회의 뜻있는 분들이 심은 작은 씨앗으로 시작되어, 현재의 국제구호개발NGO로 성장하였습니다. 외교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현재 지구촌 15개국 30개 사업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표지이야기]



“MERCI~ FRIENDS” 차드 암바타, 폴리티 마을에서 전해온 인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식량난을 겪으며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마을 주민 1,000명에게 긴급식량으로 쌀과 옥수수 10톤을 지원하였습니다. 배분된 식량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주민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우리의 마음도 함께 기쁩니다.

반기간 <좋은친구 FRIENDS> vol.009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발행정보 제9호

발행일 2020년 7월 1일

발행인 김은호

기획편집 (사)프렌즈 대외협력팀

주소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189 금성빌딩 2층

전화 02-483-5007

E-MAIL friends@hifriends.or.kr

Facebook hifriends153 / 검색 ‘사단법인프렌즈’

사단법인 프렌즈 이사장 김은호(오륜교회 담임목사)

이사 김명진(크리스탈치과 원장), 김정섭(주식회사 토비아스 이사), 배영미(전 오륜여선교회 회장),

신현수(코모키이비인후과 원장), 윤승철(시카고치과 원장), 이갑우(전 르호봇그룹 회장),

황한호(전 오륜교육자선교회 회장)

감사 마철현(세무법인 민화 대표 세무사) *이사장 이하 가나다 순

2020년 1월 1일 ~ 6월 30일 신규 후원자분들입니다.

개인 강금주 강아영 강하경 경시현 권동현 김요한 김중훈 김준영 김중환(주영) 김하은 김혜정 박승미 서은영 성혜민 안창식 원지현 유화연 윤경미(주영) 이영로 이한나 이현우 임유빈 장병주 장성민 장종섭 장혁진 정명희 정성수 조인찬 지영선 단체 은혜로교회 ㈜웰컴인터내셔널 ㈜한국생명과학연구소

프렌즈의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CONTENTS

- 04 인사말
배영미 (사)프렌즈 이사
- 05 코로나19 특집 I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 08 코로나19 특집 II
인도에서 코로나19를 말하다
- 11 아동결연
나의 소중한 집, 유년시절의 안식처
“반찬(Baan Chan)”
- 14 현장이야기 ‘하나’
세네갈에서 시작되는 희망,
Avec Friends
- 16 현장이야기 ‘둘’
편견없는 시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세요
- 18 후원자스토리
나눔은 기쁨과 사랑이에요
- 20 알립니다 I
프렌즈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되었어요!
- 21 알립니다 II
우리가 직접 만드는 희망,
프렌즈 핸드온
- 22 프렌즈 News
2020 프렌즈 상반기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의 어느 날, 프렌즈 소개 영상을 접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수줍게 웃는 아이들을 보며 울컥함과 애뜻함으로 아동 결연을 시작한 것이 프렌즈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작은 마음에서 출발했지만, 한 해 두 해 후원을 거듭하며 10년이 지나다 보니, 어느새 곤고했던 저의 삶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아이와 함께 하면서 누리는 커다란 행복감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행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세계 각처에서 쉽 없이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와 같은 후원자들의 기쁨이 있고 또 우리 아동들의 기쁨도 존재합니다.

매년 아이가 보내오는 편지를 대할 때면 후원자로서 반가움과 미안함이 교차합니다.

제 마음과는 달리 더 많은 사랑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후원자들께서 같은 마음이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쁘고 사랑스런 모습으로 잘 자라주는 아이를 보면 기특하고 고마운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요즘 프렌즈가 이전보다 더 다양한 모습으로 활발히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세계 곳곳에서 소외된 이웃을 찾아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혹여 과중한 업무에 힘들어질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섬기는 이들의 노력이 있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도움이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고통받는 아이들은 존재합니다. 힘없는 어린아이들이 학대받으며 이유도 모르는 채 죽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의 아픔을 겪는 일도, 억울한 희생을 당해야 하는 일도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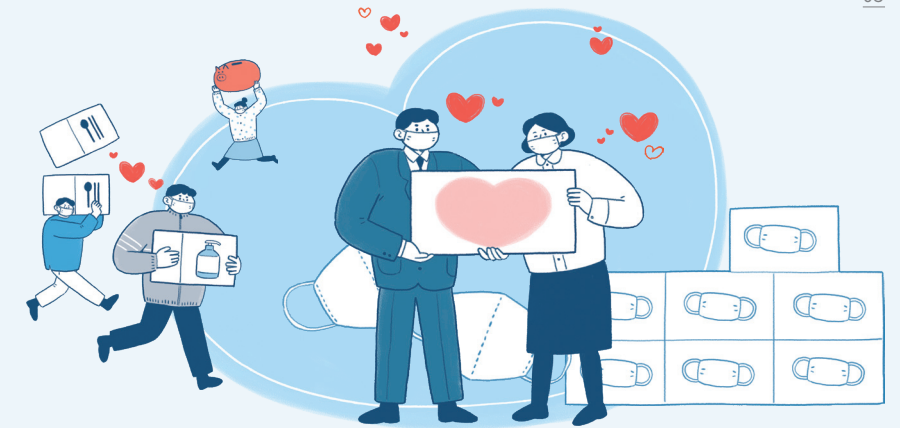
삶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착점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같은 목표점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다 보면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모든 후원자님들과 지구촌 프렌즈 가족들을 힘껏 응원하며 우리 모두의 삶의 여정 속에 나눔의 행복과 섬김의 기쁨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사단법인 프렌즈 이사 **배영미**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전염병 최고 경보 단계인 팬데믹을 선언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팬데믹은 감염이 널리 확산 되어 다른 대륙의 국가에까지 감염이 발생한 상태로, 인류 역사상 팬데믹에 속한 질병은 14세기 유럽을 거의 전멸시킨 ‘흑사병(페스트)’, 1918년 전 세계에서 5,0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스페인 독감’, 1968년 100만 명이 사망한 ‘홍콩 독감’ 등이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대 재난 앞에서 프렌즈 또한 저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한참 확산되던 시기에 프렌즈는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구 지역 의료진을 대상으로 방호복을 지원했으며, 각종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난민, 다문화가정을 위한 긴급지원키트를 제작, 배부하였고, 임시생활시설에 체류 중인 해외활동가들을 위한 지원키트도 전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실직위기를 겪고 있거나 이미 경제적 곤란 상태에 있는 취약계층 12가정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사업장까지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바람과 달리 해외사업장에서도 코로나 확산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건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해외 저개발국가 주민들에게 코로나는 예외 없이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노상에서 음식을 팔거나, 인력거를 끌거나, 빨래나 청소로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장 끼니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굶주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에 걸릴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굶주림에 내몰린 사람들은 때로는 위험하거나 극단적인 방법도 선택했습니다. 현지 활동가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도 여러 번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마치 코로나가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말라리아, 장티푸스, 뎅기열 등... 그 외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질병 속에서, 너무 자주 죽음을 마주해왔던 현지 주민들에게 코로나는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곳곳에서 긴급구호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짧은 기간에 동일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면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요청을 살피고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13개 나라, 17개 사업장에서 코로나19 긴급구호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은 계속되고 있고, 장기화 되면서 그 파장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프렌즈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지구촌에 희망을 주는 좋은 친구들”이 간절히 필요한 시기니까요.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후원과 성원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모든 후원자님께 감사드리며 이어지는 긴급구호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프렌즈는 이런 유형의 위협에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들과의 협업과 외부 기금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프렌즈
코로나19 지원현황

국내 지원



국내 방역용품 및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

53,742,880원

지원항목	지원대상	대상인원 또는 지원수량
방호복	대구지역 의료진	520
긴급지원키트 (마스크, 손세정제, 식료품 등)	외국인근로자, 난민 등 국내취약계층	210
	국내임시주거시설에 체류중인 해외활동가	26
손소독제	다문화가정,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난민 등 국내취약계층	2,000
긴급생계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가정	12
합계		2,768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KT&G 후원)

188,927,532원

대상국가	지원대상	진단키트유형	지원수량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재청 (BNPB)	씨젠 Allplex 2019-nCoV Assay	6,300명 검사분
터키	보건부		4,800명 검사분
러시아	칼루가주정부 (스베트펜드 감염질환전문 주립병원)	오상헬스케어 GeneFinder COVID-19 Plus RealAmpkit	2,800명 검사분
합계			13,900명 검사분

해외 긴급식량 및 생필품 지원

46,576,800원

대상국가	대상지역	대상이구수
차드	암바타, 쿨리띠	1,000
아이티	오나빌, 포르토프랭스	840
인도네시아	숨바	625
인도	콜카타 타켓샤르 외	515
탄자니아	음부위니 외	200
스리랑카	콜롬보	196

코로나19 국내외 긴급구호 지원 총액
289,247,212원(6/11 기준)



긴급식량 및 생필품 지원



진단키트 지원

대상국가	대상지역	대상이구수
미얀마	양곤	123
케냐	키베라	39
네팔	카트만두	19
페루	쿠스코	15
캄보디아	바탐방	5
합계		3,577

인도에서 코로나19를 말하다

전 세계가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인도는 코로나19로 피해가 매우 큰 국가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35만 명(6/16 기준)이며, 사망자 또한 10,000명에 육박합니다. 매일 약 10,000명의 사람이 신규 확진되고 있으며, 미국, 브라질,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증가세로 보아 곧 러시아를 앞지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너무나 위협적인 코로나19이지만, 인도에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은 코로나19보다 배고픔이 더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겨우 이어가던 각 가정의 가장들은 이동제한으로 밭이 묶이고, 수입이 없어 하루 먹을 음식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현장에 남아 계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활동가로부터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도 콜카타 워닝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은희입니다. 2010년 10월에 남편 유창수 활동가와 두 아들과 함께 콜카타로 왔습니다. 프렌즈와는 2012년부터 함께 일하고 있고요, 아동결연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인데요. 현지에서 피부로 느끼시는 현재 인도의 상황은 어떤지 또, 정부의 대응은 어떤지 알려주세요.

인도는 유럽 쪽에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여행객, 귀국 유학생, 사업가 등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0주 가까이 확산을 막기 위해 강경한 봉쇄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검역에 구멍이 뚫린 상황에서 확산은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경제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인도의 가난한 일일 노동자들은 코로나가 아닌 먹을 것이 없어 어려운 상황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대부분의 일일 노동자들은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돈을 벌기 위해 나온 사람들입니다.)도 막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통편들을 마련하고,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서고 있지만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지난 6월 8일 기준, 봉쇄 완화 1-3단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지금은 1단계로 전반적인 경제 활동은 풀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봉쇄 완화를 시작하면서 매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봉쇄 완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3단계가 됐을 때 학교와 국제선까지 열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1단계인 지금 확진자의 수가 증가 추세인데 경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생이나 보건에 대한 교육이 미비한 인도의 상황으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증가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웨스트벵갈 지역은 지난 5월 21일 사이클론 암판(Amphan)의 강타를 맞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곳곳에서 집이 파손되고, 나무들이 쓰러지고, 전기와 수도 공급 라인이 파손됐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로 이미 지쳐있던 서민들이 분노하여 곳곳에서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공공시설들의 복구는 빨랐습니다만, 시골 마을들과 도시 빈민가들의 가옥 파손은 제대로 수리되지 못한 채 남아있습니다.

인도 봉쇄령 신규지침

완전봉쇄구역 외 구역의 단계적 활동 재개

Phase 1 - 6/8

- 종교적 모임, 예배당 개방
- 호텔, 식당, 기타 숙박업
- 쇼핑물

Phase 2 - 개방 여부 7월 중 결정

- 학교, 대학, 교육기관, 학원

Phase 3 - 상황 추이에 따라 다음 활동 재개 검토

- 국제선 운항
- 지하철
- 헬스, 수영장
- 영화관
- 사회/정치/스포츠/엔터테인먼트/학술/문화/종교 활동과 대규모 집회

- 야간 통행 금지 : 오후 9시에서 오전 5시까지
- 완전봉쇄구역 봉쇄령 6/30까지 실시
- 주내, 주간 개인과 화물 이동 제한 해제
- 여객열차와 Shramik 특별기차, 국내선 여객기는 계속 표준운영절차를 따를 것

WHAT OPENS WHEN	
Phase 1: June 8 - Religious places, places of worship - Hotels, restaurants, hospitality services - Malls	Phase 3: To be decided - International flights - Metro services - Gyms, sports facilities, pools - Cinema halls
Phase 2: To be decided by July Schools, colleges, educational institutions	Functions of different types: social, political/sports, cultural/religious
- Movement now prohibited between 9pm and 5am - Lockdown in containment zones till June 30 - Intra-state and inter-state travel allowed - Movement by Shramik special, trains and domestic flights to continue as per SOP	



현장에서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봉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거라 예상이 됩니다. 현지 활동가로서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봉쇄로 인해 현장방문이 어려워 결연 아동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힘이 듭니다. 학교는 휴교 상태이고, 방과후수업 또한 진행할 수 없어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가정 상황들을 잘 알고 있기에, 부모님들의 수입원이 줄어들거나 없어진 상황에서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걱정됩니다. 시골 지역은 봉쇄로 인해 생계를 유지해주던 농사도 짓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듣고도 직접 가서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이전엔 학교나 방과후 학교에서 활동 등을 통해 아이들의 교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아이들 가정에 필요한 재정과 생필품으로 결연활동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수입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재정이나 생필품들이 가정에 도움이 되어 너무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프렌즈의 후원으로 지난 5월, 결연 아동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구호물품을 나눠주었습니다. 식량을 받고 눈물까지 흘리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더 많이 돕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정서적, 물질적 지원 등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시기일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주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요즘 같은 시기에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후원금과 후원물품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부모님들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필요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은 마스크와 손세정제 같은 위생물품을 나눠주고 있고, 잘 먹지 못하다 보니 영양 파우더를 생필품에 포함시켜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당장 먹고 지낼 수 있는 것조차 부족하다보니 이와 같은 현실적인 필요들이 가장 많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학업이나 진로 등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필요가 클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능한 아이들은 연락을 취하며 공부를 돕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하다 보니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학습에 공백이 많이 생겨 현지 스터들과 이 부분을 놓고 논의하면서 앞으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문자나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고, 부모들과도 이야기 나누며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어려운 때에 누군가가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이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먼저 전화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에서 확산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인 콜카타에 계속 남아계신데요, 이러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남아있겠다는 어려운 선택을 하셨는데, 무엇이 현장에 남아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을까요?

사업장에 있는 주민들과 불확실한 상황이 저희를 이 곳에 남게 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빠르게 전파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앞날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모두에게 걱정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저희가 현장에 있어야 어떻게 해서든 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초, 저희 큰아이의 대학 진학으로 6월에는 한국에 다같이 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웠었지만, 큰아이만 한국으로 귀국하고 다른 가족은 모두 이곳에 남았습니다. 둘째는 이곳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고요. 첫째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한국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 아이를 혼자 보내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만 도움의 손길들로 인해 오히려 아이가 잘 독립하게 된 것 같아 지금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봉쇄 완화 1단계로 인해 완전 봉쇄이던 때보다 많은 부분들이 열린 상태이고, 모임도 장소의 크기에 따라 10명에서 25명 내외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함께 하는 활동가들과 지역별 모임을 조금씩 진행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결연 아동의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학교는 3단계에 풀릴 예정인데 9월까지 지는 쉽지 않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6개월 동안의 학습 공백이 생깁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는 있지만, 고학년 아이들의 학습 성과는 낮을 거라 여겨져 어떻게 도와야 할지 의논 중입니다. 아이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필요한 구호활동도 더 하려고 합니다. 이제 경제 활동이 조금씩 풀리고는 있지만, 생활의 어려움은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순간,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저희의 할 일이라 여겨집니다.

끝으로 후원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지금은 전 세계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가 다 같이 멈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도는 위생에 대한 인식이나 검역 수칙이 굉장히 열악한 나라입니다. 병원 시스템도 인구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비율도 높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인구 수에 비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 정도 죽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말도 서슴치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삶의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이곳에 있으면서 많이 보고 느끼게 됩니다.

이곳 사람들 안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자신과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 소외되고, 힘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빈부의 차이가 조금이라도 작아지길 바랍니다. 모두가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너무 먼 미래의 일 같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인도의 상황에 관심 가져 주시고, 계속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의 소중한 집, 유년시절의 안식처 “반찬(Baan Chan)”



1. 든든한 이브 누나와 함께 2. 아라레
3. 반찬 친구들 4.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들과



‘자 따라 해 봐! 아~’ ‘아~’ ‘오~’ ‘오~’ ‘오~’ ‘...’
‘아니 아라레, 입을 이렇게 옆으로 벌려서 윗니와 아랫니를 붙이지 말고 크고 길게 으~’
오늘도 이브 언니는 얼마 전 구개열 수술을 한 어린 동생 여덟 살 아라레의 발음 공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떼쓰기 좋아하는 아라레도 이브 언니 앞에서는 꼼짝없이 앉아서 다섯 가지 모음을 하루에 20번씩 연습해야 합니다. 아라레를 예뻐해 주는 이브 언니지만, 공부를 게을리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니깐요. 아라레는 알고 있습니다. 공부할 때는 엄하지만, 이브 언니가 평소에 아라레에게 얼마나 다정한 언니인지를요.

이브는 올해 23세, 한창 멋 부리며 예쁜 옷과 화장품, 액세서리에 관심 가질 나이입니다.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즐겁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 애쓰는 나



이에 이브는 호텔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반찬고아원으로 돌아와 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이브에게 있어서 반찬은 어려서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다시피 한 자신을 안아주고, 꿈꾸며 자라게 해준 어머니의 품이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준 곳입니다. 이브가 고아원으로 돌아와 섬기기로 결정했을 때, 이브의 어머니는 만류했었습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길 바라셨으니까요.

하지만 이브는 승무원이 되고 싶다는 자신의 어릴 적 꿈도, 대학에서 전공한 호텔리어에 대한 기회도 모두 접어두고 반찬고아원으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상황과 환경에서 자신이 자라오면서 겪었던 그 모든 시간(가끔은 분노로 반항하며 원망했고, 가끔은 슬픔으로 울다 지쳐 잠들기도 했고, 때로는 그리움에 잠을 설쳐야 했고, 자기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어깃장을 놓기도 했던)을 똑같이

겪어나갈 동생들이 그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브 자신이 동생들이 겪게 될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끔은 말썽부리고 고집부리는 동생들을 엄하게 다그치기도 하고 미숙함으로 실수를 하거나 자신을 길러준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조금씩 동생들의 멘토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

이브는 이 두 가지를 언어가 아닌 삶으로 사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 반찬고아원에서, 사랑의 언어를 알려준 선생님들의 발걸음을 따라서...

이제 이브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선택하고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동생들 또한 같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꿈꾸어 봅니다.

후원자 인터뷰

프렌즈의
결연아동이었던
이브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이브의 ‘한국 엄마’
이혜령 후원자님을 소개합니다.

아동결연을 신청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아들만 두 명 있는 가정이라 평소에도 딸을 원했는데 결연을 통해 마음으로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후원 행사 광고를 보고, 프렌즈 부스에 가서 아동들을 보는데 이브가 17살이라 후원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추천을 받고 아

이를 보니 제 아들과 같은 나이여서 마음이 동했고, 후원을 결심했습니다.

이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쁜 아이였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사진만 봐도 기분이 환해졌죠. 아들에게 이브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엄마 딸이야, 예쁘지?”하고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혹시 아이에게 부담이 될까봐 자제하고 꾸준히 후원하면서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아이에게 기도가 최고의 후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며 기도하면서 항상 이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느새 성인이 되고 졸업을 하게 된 지금, 생각하면 편지를 ‘좀 더 자주 보내줄 걸’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엔 편지를 보냈는데 이브의 답장을 받고 너무 기뻐요.



오랫동안 결연을 지속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을까요?

앞서 언급했지만, 이브의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해마다 성장보고서를 통해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기쁨이었습니다. 사실 이브에게 안타까운 상황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대학교에 합격했는데 친모의 반대로 입학 기회를 놓쳤거든요. 연장 후원 요청을 받으면서 아이의 상황을 듣게 되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그만큼 계속 후원하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내 딸이라고 생각하니 큰 돈이라거나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거든요. 여러 명을 후원하는 것도 좋지만, 한 아이를 잘 키워서 좋은 인재가 되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후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브에게 전하는 후원자님의 편지

사랑하는 딸 이브에게

이브야~ 잘 있었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든데 우리 이브는 태국에서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지 궁금하고, 걱정하며 기도했단다. 소식 받아보고 건강히 잘 지내고 있는걸 보니 다행이라 가슴을 쓸어내렸어. 이브가 벌써 졸업을 하다니... 얼마나 대견하고 예쁘지 모르겠어. 너를 통해 큰 기쁨을 경험하고 있단다.

이브와 인연을 맺게 되어 이렇게 어엿한 아가씨가 되도록 크는 걸 볼 수 있어 행복하구나.

프렌즈에서 너의 사진을 보내올 때마다 우리 이브가 어쩔 이렇게 예쁘게 웃는지.. 가슴이 뛰었고..

건강하게 커줘서 주님께 감사하고.. 진로를 고민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 말할 수 없이 기뻐단다.

더욱 나에게 큰 기쁨은 나를 불러준 거였어. 이브는 나에게 딸이었단다.

너의 편지를 펼치는데 “한국 엄마”라고 적혀 있지 뭐니... 그만 울고 말았단다.

고맙다.. 이브야...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다.

특별히, 고아원에서 돕게 되었다니 너무 감사하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제일 먼저 너를 지으신 분께 묻고 지혜를 사모하며 너를 사랑하렴.

너의 사랑이 빛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길 기도한단다.

이브야. 사랑한다~

세네갈에서 시작되는 희망, Avec Friends (친구들과 함께)

세네갈 북부 킬레 부바카르 지역에 있는 AVEC센터는 2020년부터 프렌즈의 새로운 사업장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아이들을 위해서 방과후수업을 진행하고, 가난한 어른들을 위해선 직업훈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센터 건축이 진행되었고,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준비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권구일 활동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혹시, 너 북쪽 지역 소식 들었니?”
“아니, 무슨 소식인데?”
“어린 소녀 두 명이 무더위 속에서
물을 마시지 못해 죽었대.”
“...”

7년 전, 세네갈 현지 친구와 나눈 이 짧은 대화는 저를 지역 개발사업으로 이끌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물이 부족한 지구촌의 소식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프리카 땅의 한 이웃, 그것도 어린 두 소녀의 죽음은 일주일도 넘도록 저를 잠 못 들게 만들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사람이 죽다니...’ 오랜



고민 끝에 프랑스인이 대표인 국제지역개발팀으로 합류하여 세네갈 북부 사헬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첫째는 6살, 둘째는 13개월이었습니다. 지역개발전문가로서 어린 두 아이와 함께 아프리카 오지의 가난한 현지인들의 실제 삶을 알기 위해 현지인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세네갈 북부 현지인들이 사는 집에는 유리창이나 상하수도 시설이 없습니다. 양철지붕이 덮인 창고같이 생긴 집에서 마당에 있는 공동 재래식 화장실과 공동수도를 함께 사용하며 생활했습니다. 가장 더운 시기에는 50도까지 올라가는 사헬지역의 더위 속에서 냉방시설도 없이 현지인들과 한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15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제개발을 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아쉬웠던 것은 현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사업이 많지 않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수혜를 받게 될 주민들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사업 현장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경험이 있을수록, 지역개발의 원래 목적이 더욱 건강하고, 바른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5개월을 보내고, 현지의 필요를 위한 국제지역개발협회를 만들기 위해, 세네갈 내무부에 등록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년여의 긴 시간 끝에 2017년 11월에 ‘AVEC’이 등록되었습니다.



AVEC의 사업장은 수도에서 약 460Km 정도 떨어진 세네갈 북쪽의 ‘Thille Bou-bacar(칠레 부바카르)’마을에 있습니다. 15,000여 명 정도가 거주하는 이 마을에는 저희가 유일한 외국인들입니다. AVEC기관의 현지 활동가들은 마을에 거주하며, 모든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발전적이고 실제적인 지역개발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강점입니다.

칠레 부바카르 대부분의 마을주민들은 매우 가난합니다. 이곳에서 생계를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은 시장에서 무언가를 판매하거나 가축을 길러 판매하는 등의 작은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성인의 30%가 이러한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작은 비즈니스를 통해 가게 수입을 얻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남아공의 DBSP단체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DBSP는 오랜 시간 소상공인을 위한 직업훈련을 해온 연륜 있는 단체입니다. AVEC센터에서는 이 단체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2020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마을주민들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약 15,000여명의 마을 인구 중 3분의 1이 초·중·고등학생이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인구 비율이 아동과 청소년입니다. 교육이 매우 절실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려고 합니다. 전깃볼도 들어오지 않고, 책상이나 학용품도 갖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세계관이 변하고, 교육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영양결핍에 처해 있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향후 프렌즈의 아동결연사업이 시행된다면, 이곳의 아이들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더 큰 꿈을 그리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칠레 부바카르 마을을 기준으로 차로 20분~1시간 안에 있는 수많은 내지마을들이 있습니다. 10~50가구로 이루어진 이러한 마을들은 수도시설이나 전기가 없는 마을들입니다. 향후 내지마을에서 성인과 아동을 위한 문맹교육, 위생교육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AVEC은 2020년 상반기, 칠레 부바카르 마을에 센터를 건축하였습니다. 이제 그 시작을 프렌즈와 함께 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열악하고 가난한 사헬지역을 위한 국제개발사업은 그 필요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프렌즈의 세네갈 사업장으로서 아름다운 파트너십을 통해 이곳에서 멋지게 될 열매들을 껴뭍습니다. 우리의 업적에 대한 열매가 아닌 현지인들 안에 멋지게 될 변화와 보다 나은 삶을 통한 소망과 희망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AVEC’는 프랑스어로 ‘~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Avec Friends! 친구들과 함께! 현지인들 안에 멋지게 될 아름다운 열매들을 위해 프렌즈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AVEC의 소중한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편견없는 시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세요

국내 시설

퇴소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 지원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쉼 곳은 작은 집 내 집 뿐이리...”

헨리 비숍 경이 작곡한 것을 폐인이 극음악으로 만든 ‘홈 스위트 홈(즐거운 나의 집)’은 폐인이 몹시도 가난했던 시절에 만든 노래입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고, 집도 없이 길거리에서 떠돌던 폐인은 길거리에서 생을 마감하기 1년 전, 친구에게 이런 글을 보냈다고 합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가정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노래한 나 자신은 정작 지금까지 내 집이라는 맛을 모르고 지냈고, 앞으로도 맛보지 못할 거야.”

즐거운 여행도 돌아갈 곳이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쉼 수 있는 보금자리와 반겨줄 가족이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평범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행복이기도 합니다.

만18세, 아직은 홀로서기 쉽지 않은 나이에 세상에 나와 스스로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입니다. 부모의 사망, 이혼, 학대, 경제적 곤란 등으로 돌봄을 받지 못해 시설, 위탁 가정 등에서 보호받던 아동은 만18세가 되면 사회로 나와야

합니다.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말은 보호대상아동들이 보호 조치 종료 후 5년간 불리는 이름으로, 매년 약 2,600여 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세상으로 나옵니다.

400~500만 원의 자립정착금, 3년 동안 월 30만 원의 지원금이 있지만, 시설에서 지냈던 아동들은 단체 생활을 하다 갑자기 주어진 자유와 수많은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오히려 자신이 져야 하는 상황 앞에서 쉽게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휴대폰 개통조차 본인 명의로 할 수 없고, 병원에서 수술받거나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여러 제약을 받습니다.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자립정착금을 빼앗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5년 전, 보육원을 퇴소한 민재와 민우(가명)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보육원에 맡겨졌던 이 쌍둥이 형제는 18세가 될 때까지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퇴소하고 다시 만난 친부는 자립정착금만 빼앗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고, 재혼해 생활하던 친모 역시 보육원 출신에 남편의 거듭된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서 아무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살 곳이 없어 찜질방을 전전하다 보니 일정한 주거가 없다는 이유로 취업도 잘되지 않았고, 휴대폰 영업, 물류센터 아르바이트 등 열심히 일했지만, 보육원 출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 일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았습

니다. 한참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두 형제가 만난 곳이 ‘고아권익연대(대표 조운환, 요보호아동과 보육원 퇴소자들의 권익, 자립을 돕는 단체)’입니다. 프렌즈는 지난해 말부터 이 단체와 협력하여 보육원 퇴소자들의 자립을 돕고 있었는데, 쌍둥이 형제를 위한 주거 지원 제안을 받고 이 일에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거복지연대를 통해 LH가 지원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장기 미분양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대신에 노후화된 주택개보수 비용은 프렌즈가 후원하고, 보증금과 입주 시 필요한 가구와 가전제품, 이후 생활 관리와 자립 지원은 고아권익연대와 타 기관들이 분담하는 형태로 형제를 위한 보금자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리중



여러 기관의 노력과 응원을 모아 3월 11일,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임대주택(빌라 3층, 전용면적 48.9㎡, 침실 1, 거실 및 주방 1, 화장실 1, 다용도실 1, 발코니 1)에 계약을 하게 되었고, 개보수 과정을 거쳐 4월부터 형제가 입주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민재는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관심을 가질 만큼 노래를 잘하고 버싱킹을 좋아하며, 요리를 좋아합니다. 동생 민우는

사진 촬영과 영상 만들기를 좋아하고 재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형제와 마찬가지로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던 우진(가명)이와 함께 세 명이 살게 되었는데 민재와 우진이는 CJ푸드빌이 주최하는 꿈드림아카데미(현장실습을 포함해 700여 시간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료하면 CJ계열 브랜드의 매장 운영직군에 취업연계가 가능한 프로그램)에 합격하여 함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공사 후 입주한 모습



세 아이는 자립지원과정을 거쳐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자립해 숙소를 떠나게 되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다시 주거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이번에 마련된 임대주택은 20년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것은 이들의 자립을 위해 무엇보다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보호종료아동이 편견과 차별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민재와 민우, 우진이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또 다른 민재와 민우, 우진이가 세상에 나올 때, 우리 사회가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어 이들을 안아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프렌즈도 이 소중한 걸음에 함께하겠습니다.



나눔은 기쁨과 사랑이에요

김준엽·김경숙 후원자

프렌즈는 따뜻한 마음과 선한 뜻을 가진 많은 후원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아동결연후원으로, 사업장에서는 저금통 후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김준엽·김경숙 후원자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엽, 김경숙 후원자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기쁘네요~ 프렌즈 가족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런 인터뷰가 처음이라서 너무 떨리기도 하고, 쑥스럽고 부끄럽네요~ 저희는 송파 오금동과 마천터널 앞에서 타이어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륜교회 성도이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게 되어 반갑습니다.

프렌즈 ‘좋은친구’ 구독자분들도 함께 즐거워하실 거예요! 편안 한 마음으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궁금한 점들을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연말에 프렌즈 저금통으로 후원금을 모아 기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저금통 후원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금통은 저희 매장에 비치해 놓았는데요, 오시는 손님들의 펄크 난 타이어를 수리할 때 금액 중 일부를 저금하고 있어요. 종종 저금통 옆에 있는 사진을 보고 기부해 주시는 손님들도 있습니다. 감사하죠.



수익 중 일정 금액을 따로 내어서 기부하신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실텐데, 대단하시네요~ 프렌즈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다른 분들에게 프렌즈 후원에 대해 소개해 주셨다고요?

맞아요. 저희 매장의 거래처 사장님들이신데요~ 사실 어떤 단계에 후원을 하기 전에 ‘내가 낸 후원금이 잘못 쓰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후원을 꺼리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런데, 프렌즈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후원금이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었어요.

후원을 소개받은 분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제가 아동결연을 하고 있는데, 혹시 마음이 있지만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신다면, 프렌즈에서 아동결연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두 분 정도가 선뜻 후원에 참여해 주셨어요. 프렌즈 저금통도 추천을 했었는데요, 저금통에 모은 기부금으로 우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한다고 설명하며 프렌즈 리플렛을 보여주었더니, 저금통을 가져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매장에 선뜻 비치해 주셨어요.

아~ 그렇게 해서 후원자가 되신 분이 하남 미사리점 사장님이시죠?

네. 그 사장님께서 12월이 되면 저금통을 가지러 와달라고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매장에 방문해 보면, 사이즈가 꽤 큰 저금통 안에 현금이 가득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아까운 생각이 안 드냐고 물어보니, 그 돈은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

서 손님들 중에도 기쁜 마음으로 기부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참 뿌듯했습니다.

저금통 후원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보람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금통의 의미는 아무래도 ‘티끌 모아 태산’이잖아요~ 적은 금액을 부담 없이 넣으면서 12월이 되면 얼마나 모였을까 하는 기대와 설렘으로 저금통을 열어보게 되죠. 그것을 프렌즈에 드릴 때 나누는 기쁨과 보람을 느껴요.

앞에서도 잠시 언급하셨지만, 저금통 외에 아동결연후원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계기로 후원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결혼을 하면서 작지만 의미 있는 것을 찾다가 월드비전에서 아동결연을 시작했어요. 어느날, 프렌즈가 교회 로비에서 아동결연사업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귀여운 아이들이 웃고 있는 사진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 사진을 보고 프렌즈에 후원하기 시작했죠.

매년 한 명씩 결연아동을 더 후원하고 계시잖아요, 한 명도 사실 꾸준히 하기 쉽지 않은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예전에 오륜교회 예배시간에 가수 선 씨가 초대되었는데 본인이 현재 500명의 아빠라는 거예요~ 그 때 나눴던 이야기들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형편으로는 그럴 수 없으니 한 해에 한 명씩 늘려보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선 씨 못지 않게 많은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되어 계실 것 같은 즐거운 기대감이 드네요~ 혹시 아동결연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비결? 원동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있으실까요?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보내주는 카드를 받으면 참 행복해요. 나의 작은 섬김이 이 아이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쁨이 생기죠. 성장보고서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건강하게 자란 아이의 모습을 봐요. 꿈이 없었던 아이가 꿈을 갖게 되고, 그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그리고 후원해 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 오면 정말 큰 보람을 느껴요. 이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고 꿈을 꼭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후원자를 만났으니 아이들이 끝까지 잘 성장할 것 같아요. 그럼 후원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아직 후원하기를 주저하시거나 이제 막 후원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후원을 주저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후원한 것이 제대로 사용될까 하는 의심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프렌즈는 믿을 수 있어요. 나와 결연한 아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환경에 감사하게 됩니다. 카드가 오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카드를 읽고 사진을 봐요. 그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교육이 되죠. 나눔은 기쁨과 행복이잖아요. 저희 가족에게 이보다 더 귀한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이 이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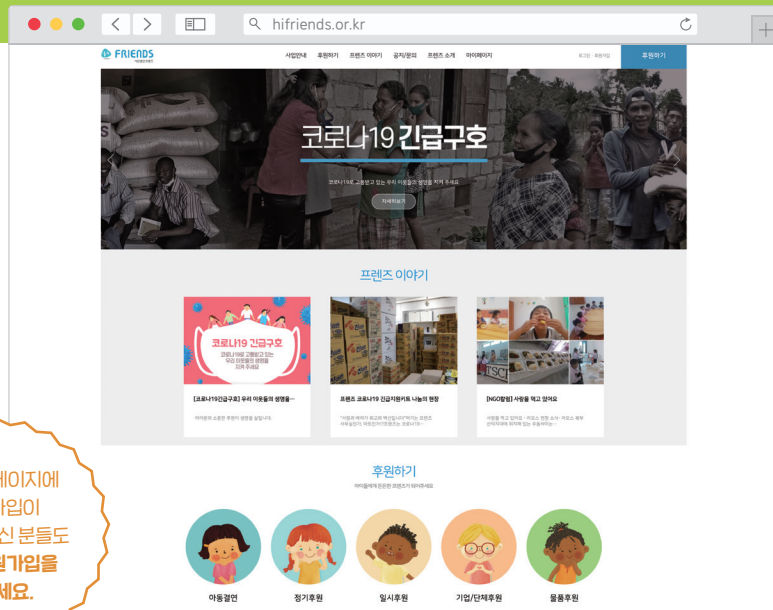


*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준엽·김경숙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후원 스토리가 알려지는 것을 여러 번 사양하셨지만, 프렌즈의 간청에 용기를 내주셨습니다. 쑥스럽고 부끄러워하시는 모습과 달리, 그 내면은 아이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응원으로 가득 차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나눔의 행복과 기쁨이 앞으로도 이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 위 두 곳 매장에서 보내주신 저금통 후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해외사업장 긴급식량키트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저금통 후원에 참여하실 후원자님들을 기다립니다. 문의 02-487-5007

프렌즈의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되었어요~

프렌즈의 홈페이지가 예쁘게 단장을 하고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불편했던 점들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는데,
몇 가지 달라진 점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직접 만드는 희망, 프렌즈 핸즈온

“집에서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고?”
“네네네!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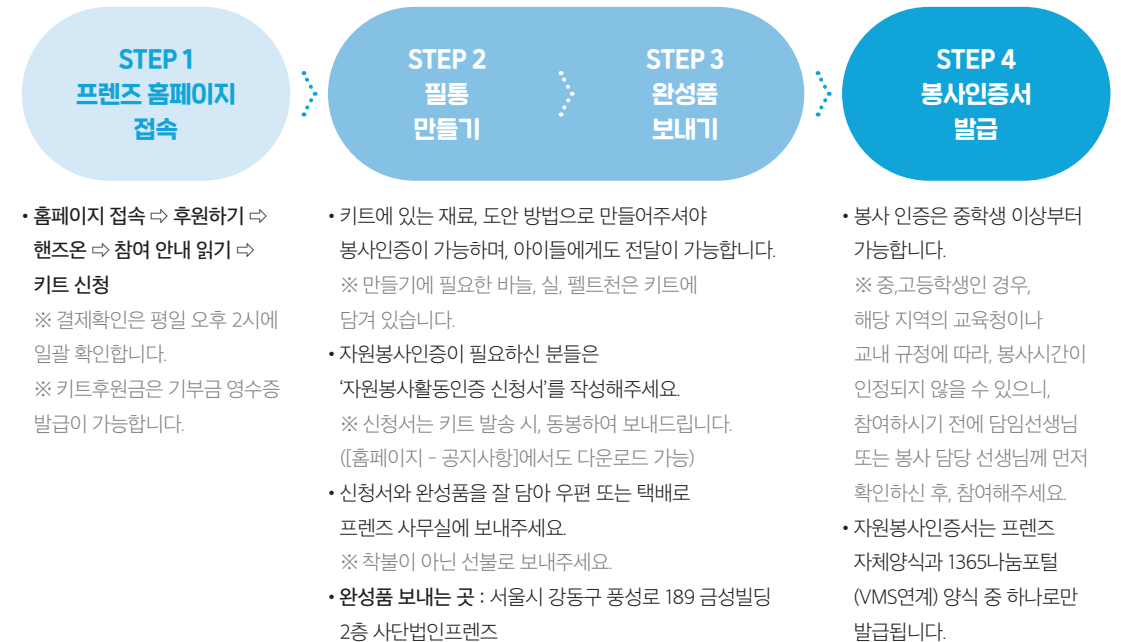
코로나19로 모두 강제 집들이, 집순이가 되어가는 요즘, 조금이라도 의미있게 시간을 지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프렌즈 핸즈온~ 이른바 참여형 기부활동이라고 불리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곳곳에는 아직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연필 한 자루, 지우개 하나도 이 친구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프렌즈 키트는 직접 필통을 만들 수 있도록 도안과 각종 재료가 담겨 있는데요, 정성껏 필통을 만들어 보내주시면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키트 후원금으로는 열악한 교육 환경과 생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는, 의미있는 활동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필통을 선물해주시고 여러분의 응원도 함께 전달해 보세요!

참여하는 방법



2020 프렌즈 상반기 News

태국 아라레(구개열 환아) 지원



선천적으로 구개열을 가지고 태어난 8살 아라레는 정상적인 발음이 어려워 언어 장애를 갖고 살았습니다. 입천장이 열려 있어서 우유나 음료를 먹는 것도 힘들었고, 잘 성장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언어 장애가 있다보니 자신감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프렌즈를 만났습니다. 다행히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방문한 현지 병원에서 국가의 무료수술 혜택에 연계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너무 늦은 수술(보통은 생후 1년 6개월 이내에 수술)로 이미 발생한 언어 장애는 바로 회복될 수 없고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구개열로 인해 이물질이 왼쪽 귀에 들어가면서 청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인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술 외에는 아무 지원도 받을 수 없어서 언어치료와 귀 치료, 입원과 통원기간 동안 아이를 돌보기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엄마를 위한 생계비와 교통비 등을 프렌즈가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2월에 언어재활치료를 시작한 아라레는 앞으로 약 1년간 언어치료를 받게 될 예정인데, 그사이 벌써 성격도 밝아져 많이 웃는 아이가 되었고 말하는 것에

도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된 아라레, 더 밝고 씩씩한 모습으로 건강히 자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미얀마 셋따마을, 예빠마을 급수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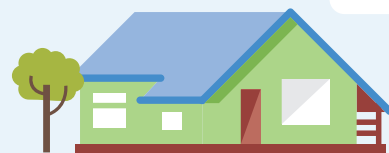
미얀마의 셋따마을과 예빠마을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선물받게 되었습니다. 2월 중순부터 5월까지의 미얀마의 건기에 해당되는데, 이때는 비가 오지 않고 물도 마르기 때문에 식수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얀마 사업장에서는 초,중등학교에 깊이 30~40m의 파이프를 통한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2020년 3월에는 셋따마을과 예빠마을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셋따마을은 120가정이, 예빠마을은 100가정이 식수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되면 추가로 3개 마을에 급수시설을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미얀마 프렌즈학교 4호 탄도지학교 완성



학교건물이 매우 열악해서 우기에는 비가 들이치고, 건기에는 혹독한 더위로 힘들었던 탄도지학교가 새 옷을 입었습니다. 2월부터 시작된 학교 건축에는 마을 주민들이 여러모로 협동하며 건축 과정을 도왔습니다. 덕분에 4월 우기가 시작되기 전, 건축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탄도지학교는 현재 4학년까지의 학생 98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학교를 신축하는 동안 정부 승인을 받아 앞으로는 초등 고학년인 7학년까지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거리가 멀리 떨어진 다른 마을로 수업을 들으러 가야 했던 40여명의 5~7학년 학생들도 전학하여 집에서 가까운 탄도지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신 탄도지마을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스리랑카 타붓 우물 보강 및 정수 필터 지원



스리랑카 타붓 카루월라가스웨어(karuwalagaswewa) 마을에도 깨끗한 물이 전달되었습니다. 이곳의 물은 많이 오염되어 있어서 식수로 사용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마을까지 가서 물을 길어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우기가 되면 다른 마을까지 가는 길이 온통 진흙탕이 되어서 더욱 힘들었던 곳이었습니다. 작년에 다른 곳의 후원을 받아 우물을 설치했는데 안타깝게도 재정 부족으로 깊이 파지 못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없었고, 방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프렌즈의 후원을 받아 우물시설을 개선하는 보충공사를 시작하였고, 정수 필터도 설치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중심에 설치된 이 우물로 카루월라가스웨어의 600여명 주민들이 걱정없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오스 프언밋학교 통학차량 지원



라오스 프언밋학교는 소수민족이 주로 살고 있는 우돔싸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악지대에 있어서 도로 사정이 열악하고, 통학이 어렵기 때문에 이곳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군 또는 도청 소재지로 내려와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집을 떠나 시내에서 생활하려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들은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 생계를 위한 일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런 사정으로 배움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아이들을 위해 프언밋학교에는 통학차량이 꼭 필요했습니다. 급한 대로 중고버스를 구해서 50여명의 통학을 도왔지만, 작년에 학생 수가 160명으로 더 늘어나면서 다시 통학차량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 후원자들이 힘을 모았지만, 비용이 부족해 애를 태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남은 비용 전액을 프렌즈가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짜~잔! 드디어 프언밋 가족 모두가 고대하던 멋진 통학차량이 학교에 선을 보이고, 어느새 이 버스는 학교의 명물이자 보물이 되었네요. 우돔싸이 산길을 누비며 안전하고도 즐거운 아이들의 통학길에 소중한 친구가 되어줄 통학차량의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인도 람강가 뽐모이가정 주거 지원



프렌즈 결연아동인 뽐모이는 할아버지, 엄마, 형, 누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가 소식이 끊긴 아빠와 편찮으신 할아버지를 대신해 엄마 혼자 돈을 벌며 가족의 생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는데, 2019년 11월 폭우와 태풍으로 보금자리였던 흙집이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았지만, 집을 다시 짓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임시 텐트를 치고 겨울을 보냈습니다. 소식을 듣고 뽐모이의 가족에게 새 집을 마련해주기로 하였고, 드디어 방 2개와 부엌 1개를 갖춘 튼튼한 벽돌집이 지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쉽게도 창과 외벽을 칠하는 마무리 공사는 못하게 되었지만, 우기가 되면 임시 텐트에서 지내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선 입주하고 이동제한이 풀리면 마무리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후원자님들의 사랑으로 튼튼한 보금자리를 갖게 된 이 가정에 앞으로는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촌에 희망을 주는

좋은친구 FRIENDS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89 금성빌딩 2층

Tel 02-483-5007 Fax 02-6007-9857

E-mail friends@hifriends.or.kr Homepage www.hifriends.or.kr



후원계좌 안내

예금주 사단법인 프렌즈

후원계좌번호 국민은행 777501-04-111940, 신한은행 100-023-015009



FRIENDS
사단법인프렌즈